

대동그룹, e-바이크·AI 로봇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진출



스마트팜 등 3대 미래사업 추진
e-모빌리티 공장설립 1214억 투입
원유현 “미래농업 리딩기업 될 것”

설립 70년을 향해가고 있는 농기계기업 대동이 무한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1947년 창립 이후 60년대 당시 국내 최초로 동력경운기를 생산하며 기계 농업의 포문을 연 토종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밀 농업을 비롯해 자율주행, 스마트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면서다.

1일 대동그룹에 따르면 계열사인 ㈜대동모빌리티(구 한국체인공업)를 통해 2024년 10월까지 총 1214억원을 투입하고 대구국가산업단지에 e-모빌리티 제조공장을 세운다.

10만2264㎡(약 3만평) 규모의 공장이 내년 6월까지 완공되면 가을부터는 농업용 모빌리티 제품을 비롯해 e-바이크, AI 로봇모빌리티를 본격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동그룹은 지난 31일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K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난달 31일 대구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동그룹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협약(MOU)'식에서 (왼쪽부터)KT 송재호 부사장, 대동모빌리티 이승원 대표, 대동 원유현 총괄사장, 권영진 대구시장, 여준구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김익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AI 로봇연구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동

(KIRO) 등의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대동그룹 e-모빌리티 신사업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대동은 KIST, KIRO와 협력해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농업용 모빌리티인 다목적 운반차, 농업용 다목적 차량, 로봇잔디깎기 등의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배달·물류시장에 특화된 e-바이크를 통해 전기 이륜차 시장에도 진출한다. AI 로봇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KT와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대동 관계자는 “AI 로봇 모빌리티는 원격 조정, 실내자율주행 등의 기능을

탑재해 이동성이 뛰어나고, 분해 조립이 가능해 보관과 이동이 편리해 관광이나 전시교육 시설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동은 AI 로봇 모빌리티에 대해 내년에는 의료기기 GMP 인증, 전시로드쇼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들 e-모빌리티 제품은 배터리 교환 방식을 채택해 생산, 충전기 개발·보급, 거점 충전소 설치·운영, 관제센터 운영 등 플랫폼 형태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원유현 대동 총괄 사장은 “올해는 미래농업 사업의 원년으로 스마트 농기

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 사업 부문에 있어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보여 시장 리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기계를 넘어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어 국내 농업 기계화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이 시장을 개척해 미래 농업 리딩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동은 올해 초 기존 '대동공업'에서 사명을 '대동'으로 바꿨다.

그러면서 ▲스마트농기계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3대 미래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밀농업(Precision Farming)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 무인 자동화로 운영하는 도심형 '스마트팜'도 대동의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중 하나다.

이는 ICT를 활용해 ▲농작물 생육 빅데이터 구축 ▲작물의 생육, 토양, 병해충 등 재배 환경 실시간 분석 ▲농작물 생육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비료, 물, 노동력 등등의 재배 솔루션 제시 ▲자율주행 및 무인·원격 농기계를 투입해 작업 시행 과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량을 극대화를 위한 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말한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농작물의 생육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통해

농업의 '완전한 정보화·무인화'를 이루는 것이라는 게 대동측의 설명이다.

대동은 앞서 첫 단계로 '대동 커넥트(Connect)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대동 농기계 사용자가 대동 커넥트(Connect)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농기계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원격으로 컨트롤 하는 관제 서비스다.

대동 김성규 정밀농업팀장은 “현재의 커넥트 서비스는 농기계 조작 및 관리 중심의 서비스이지만 24년까지 경작, 시비, 방제, 수확 단계에서의 농업 솔루션 서비스를 개발해 25년부터 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동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8957억원, 영업이익 331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올해 들어서도 1·4분기에만 2972억원의 매출과 262억원의 영업이익으로 분기 매출 역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6.4%, 영업이익은 60.7%나 증가한 수치다.

증권시장의 반응도 뜨거워 지난해 12월30일 기준 6820원이던 대동 주가는 5개월새 가파르게 오르며 지난달 31일에는 1만3100원에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중앙회, 송영길 민주당 대표 초청 타운홀 미팅

김기문 “신경제3불 해결 위한 정책지원 나와야”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현실반영 등 건의
노사합의시 추가 연장근로 허용 요청도

중소기업계가 여당 대표에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공공조달시장 제도(최저가 입찰, 부정당업자 제재 현실화 등) 개선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달 12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의 상견례에서 빠른 시일 안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그 일환이다.

열처리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인은 이날 자리에서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탄력·선택근로제의 단위·정산기간 확대도 다소 소통은 되었지만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와 기업의 구인난은 더욱 심해져 노사 모두에게 어려움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노사합의시 일분과 같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기중앙회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시 연장근로한도는 월 45시간, 연간 360시간까지 가능하다. 특히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경우 연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내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시계업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시장이 급성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증가했지만 불공정 거래 피해사례가 많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한 법이 빨리 통과돼 공정한 거

래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거래 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3불' 해소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 문제인 '신경제3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에 힘써달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기업할 맛 나는 정책'이 만들어질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홈쇼핑 ‘일사천리’ 상품 주문액 1000억 돌파

10년간 98개 우수중기 판로 확대

홈쇼핑의 중소기업 우수상품 지원 방송인 '일사천리'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

1일 홈쇼핑에 따르면 '일사천리' 사업은 저렴한 수수료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상품을 발굴해 방송 론칭까지 책임지는 홈쇼핑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지원 사업이다.

홈쇼핑은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10년간 '일사천리' 사업을 통해 약 980개의 지역 우수 중소기업이 판로를 넓혔다. 특히 이 사업은 2018년 147억6000만원, 2019년 179억원, 2020년

213억5000만원 등 상품주문액이 매년 꾸준히 늘어나며 중소기업 판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결과 지난달 '통영손질통오징어' 방송을 기점으로 누적 상품주문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일사천리 사업은 무엇보다 영업 유통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 진입장벽을 낮춰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홈쇼핑은 중소기업 메가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상품들을 일사천리 방송이 아닌 일반방송으로 전환해 더욱 많은 방송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중기연구원, 오동윤 동아대 교수 원장 선임

중소기업연구원 이사회는 2021년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오동윤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사진)를 제8대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했다고 1일 밝혔다.

오동윤 선임 원장은 미국 하와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지역학 석사(중국경제), 성균



관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국제경제)를 각각 취득했다.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롯데경제연구소, 중소기업연구원을 거쳐 2014년부터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승호 기자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중소기업인 만난 송영길 “빠른 경제 회복 중심에 중소기업”
▲ 조국 “윤석열, 중앙지검장에 한동훈 요청…어이가 없어” /사진 뉴스스

▲ “영감, 보고 싶었어”... 요양병원 면회 老부부 눈물의 재회
▲ 북한, 김정은 다음 가는 직책 신설... 조용원 비서 맡을 가능성 ↑



▲ 정의용, P4G영상에 평양지도 “실수 유감...경위조사 필요”
▲ 도쿄올림픽 제국주의로 얼룩지나... 육일기 유니폼 등장 /사진 뉴스스